

Contents 2015 봄 19호

02	재단포커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전주화약일”로 선정
06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 정의화 국회의장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개최
08	녹두칼럼	동학농민혁명 150주년을 생각하며 -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윤석산
11	인터뷰 ① 발굴! 참여자유족	의협심을 가지고 홍주성 전투에 접주로 참여하다 - 참여자 김양권의 손(孫) 김영규
14	인터뷰 ② 동행공감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국내화·세계화하기 위하여 -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전해철
17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조석헌(曹錫憲) : 태안지역의 대표적 동학농민군 지도자 - 서강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 조재곤



19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2
24	녹두서당	동학농민혁명 초, 중 · 고등용 교재
26	건강과 생활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장애 관리
28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31	네트워크 소식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제22차 정기대 의원총회 외
35	알려드립니다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봄호(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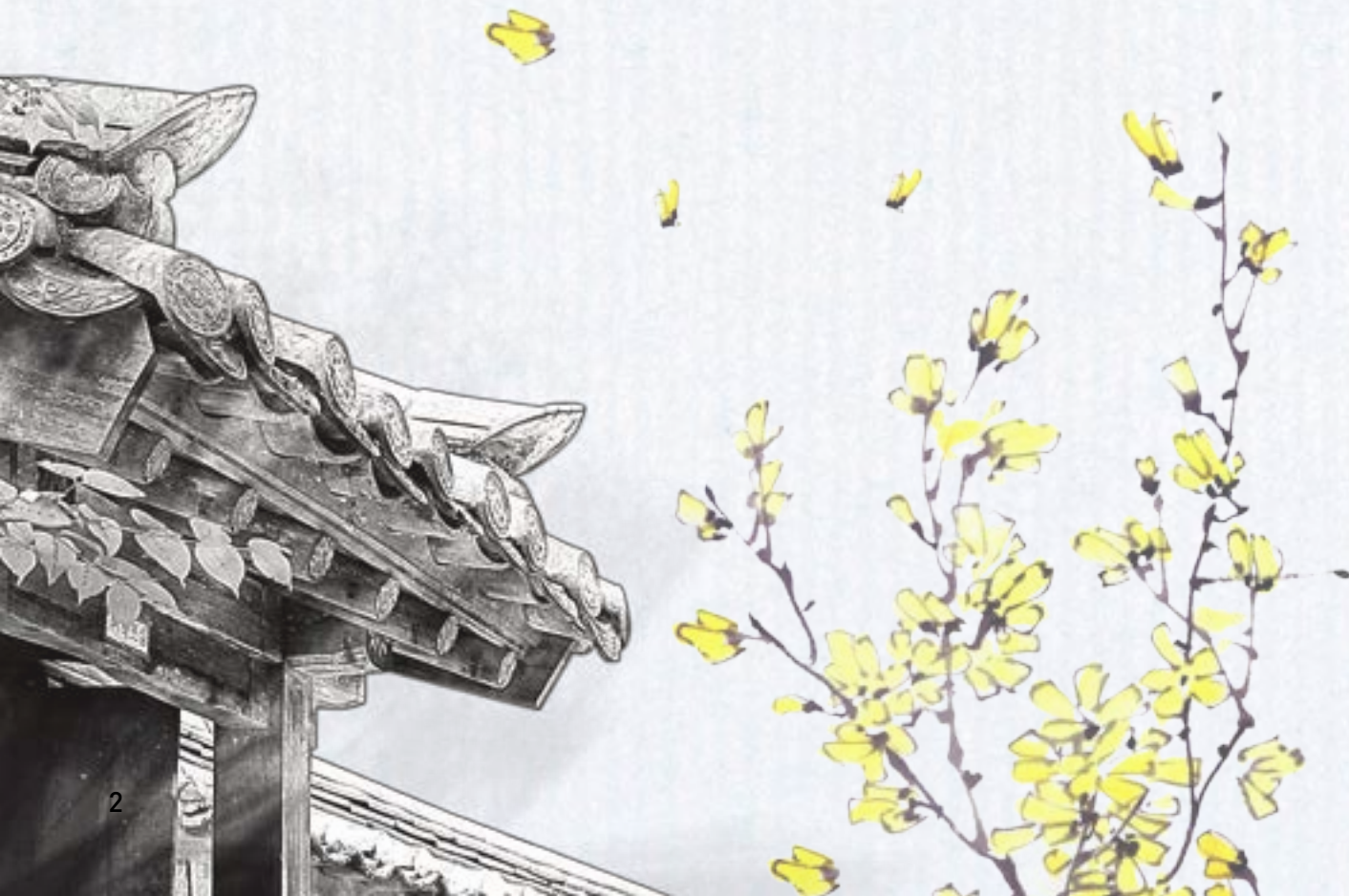
발행일 2015년 3월 31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전주화약일”로 선정

지난 3월 3일(월)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활동 보고회’를 통해 ‘전주화약일(양력 6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추천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기념일제정 추진심의(2005~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운영(2011), 국민여론조사에 의한 기념일 제정 추진(2012), 기념일 제정 관련단체 간담회(2013)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입각한 국가 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27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해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장, 학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학계 전문가의 대표들로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며, 이와 별도로 학계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해 국가기념일 후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추천일을 선정토록 위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자문단은 그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후보로 거론되었던 14개의 안 중 ‘논산결집일 (11.9)’과 ‘전주화약일 (6.11)’ 두개의 날을 추진위에 제안했으



며,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세계화의 의미가 함축된 날,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등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날, 다른 국가기념일 등과 중복되지 않는 날이라는 국가기념일 선정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전원의 합의로 '전주화약일(6.11)'을 추천일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3일(화)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활동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위와 자문단의 논의결과 '전주화약일(6.11)'이 추천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하고, 참석자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을 밝혔다. 대표들이 이에 동의하여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총 20명의 투표결과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전주화약일(6.11)'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추천일로 최종 선정되었다.

'전주화약일(6.11)'은 동학농민혁명군과 조선정부가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민이 화약한 날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지향점인 폐정개혁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협의를 도출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주화약의 결과로 한국의 자생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집강소가 설치되어 관민통치 또는 농민통치가 실현되었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이자 최대의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 타 국가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날이라는 점도 기념일 최종안으로 확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추진위는 최종 선정안에 대





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히 협의하고, 국가기념일 제정 절차에 의거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유·평등·개혁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전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단체들의 염원이다.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 국가 주관의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선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최종 선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121주년이 된 지금에야 선열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야 부끄러운 후손이라는 명예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확정되는 날 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열들의 그 큰 뜻을 계승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고생해주신 추진위, 자문위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정의화 국회의장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개최



정의화 국회의장(이하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 의장이 주최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즉 2주갑을 맞아 그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과정, 결과에 오늘날 한국정치를 비춰보아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국회의장의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 의장은 2014년 11월 29일 정읍을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았으며, 지난 2월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는 개회사를 통해 “120년 전 당시 위정자들은 격동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삼천리강토를 외세의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라 언급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고종황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환영사에서 안재홍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장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나 그 반대로 현재에는 과거가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가를 추적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오늘의 학술회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각각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치학자로서 한국사 연구에 힘써온 신복룡 前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제자로 초빙되었다. 신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과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이유, 현 시대에 동학농민혁명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를 역사의 반복, 즉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교수의 발제이후 이루어진 토론에는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참여했다.

토론중 이정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기반은 공동체 조직에 있었으며, 공동체 붕괴로 야기되는 문제의 극복을 위해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할 때”라 언급했으며, 최희갑 교수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드러낸 공동체 문화는 한국인의 역동성으로서 재현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공동체의 바람이 충실히 반영되는 정치의 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곤 동학농민혁명 이사장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되짚어 보고 각각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 속에서 토론자들의 입이 모아진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이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제의 야욕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회개혁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데 있었다.

학술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정 의장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다거나 나라의 허리가 두 동강 나는 일이 우리 민족사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을 해보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귀감을 삼아 개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150주년을 생각하며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윤석산**

지난 갑오년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였다. 120년이라는 숫자보다 더 의미를 지닌 것은 두 갑자를 맞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두 갑자를 맞아 많은 행사를 기획했고, 또 실천했던 한 해였다.

동학농민혁명 두 갑자를 맞이하고, 또 이 해를 보내며, 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년 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비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고, 또 관심의 면에서도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동학농민혁명의 100주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니고 접근을 했고, 또 수많은 기관과 매체가 동학농민혁명을 다루었다. 속되게 이야기해서, 일컫는바 글줄이나 쓰는 사람이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학'을 이야기했고, 매체는 매체마다 동학에 관한 글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 지난 100주년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아닌 두 갑자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사회적 관심의 면에서도 현저히 떨어졌고, 매체 등에서의 관심 역시 100주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100주년을 맞아서는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나 시가 수없이 출간이 되었고, 영화, 뮤지컬, 창극,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학, 동학농민혁명이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 벌어진 여러 학술세미나에서도, 학자들이 새로운 자료를 찾는 수고를 하였고, 또 다양한 논의를 벌였지만, 세간의 증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심이 부재라는 시대적인 모습 때문에인지, 혹은 발표된 글들이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해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도, 100주년 기념에 비하여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관심의 밖에서 대부분이 진행되었음이 지난 한 해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모습이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느 학술세미나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참가를 해서 하는 소리가, 그 말이 그 말인 논의만이 되풀이 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참가한 의미도 없고, 참으로 지루했다는 불평 섞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결코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간의 평을 듣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에도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 없이 지나간 한 해가 되고 말았다.

물론 의미 있는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또 발표된 논문들 중에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지닌 글들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는 아니다. 전반적인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행사나 진행된 각종 세미나가 20년 전에 비하여 크게 발전이나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20년 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에는 100주년이라는 시간성의 의미가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웬지 100년이라는 의미는 남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리라. 그런가 하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그 첫 번째가 바로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던 1994년은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그 불꽃이 치열하게 타오르던 그러한 때였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반봉건과 반외세의 기치는 시대적 이슈와 참으로 어울리는 태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변혁을 촉구하던 시대적 열망과 함께 새로운 한국적 민주주의나 현대화의 모습이 요구되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동학, 동학농민혁명은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열망을 흔들어주고 또 채워주기에 참으로 적절한 사유이며 운동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20년의 시간은 우리사회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 변화와 함께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다시 말해서 안정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로 그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사회를 관류하는 사유 역시 많은 변화를 하였다. 근대, 혹은 현대성에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탈근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보다 조화와 균형의 사회를 이루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죽창을 든 동학의 모습보다는 동학의 사유가 깃들여진 동학적 조화와 균형의 삶이 더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서로가 싸우고 싸우므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자 일어난 혁명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동학농민혁명의 근저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무너진 질서에 의하여 야기된 부조화와 불균형의 삶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이루려는 열망의 시대적, 역사적 표현이었다.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이슈에 있어 사상적인 배경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없다. 시대적 사건이나, 역사적 분기점을 이룬 사건에는 분명한 사상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그 사상이 어디에서 배태가 되고 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다양하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정권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의 질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에 의한 혁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 열망의 궁극적인 도달점에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삶을 이룩하는 데에 있음이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30여 년 전에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하여 일어났고, 또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하여 전개된 동학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한울님으로 대하고 섬기므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강조되는 '사인여천(事人如天)',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유를 공경하므로 우주적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삼경사상(三敬思想)',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신이 서로 상생과 공생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이천식천(以天食天)' 등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쳤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르침과 함께 조화와 균형, 상생과 공생의 삶을 지상에서 이루고자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모여들었고, 그 모여들은 이내 커다란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학의 민중적 작용이 바로 척양척왜의 기치를 든 교조신원운동이었고, 동학농민 혁명이었다. 1890년대라는 19세기 후반, 동학이 이 땅에 그 가르침을 편지 30여년이 지난 그 당시, 동학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사회적 정치적 운동은 다른 아닌 동학사상의 사회적인 실천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궁극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동학사상'에 대한 탐구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학의 사상이 어떻게 그 혁명의 불꽃을 지폈으며, 당시의 민중들을 운집하게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하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모든 역사의 추동력에는 그 힘을 이끌어내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들이 집결하였고, 또 추진이 되었고, 동학적인 이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고, 한국근대사의 크나큰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서 다시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두 감자를 맞았지만, 이 20년보다 조금 더 시간을 지나게 되면, 동학농민혁명 1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가 지닌 역사의 바퀴를 거의 움직여 놓지 못한 통환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30년이 더 지난 150주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겁게 안고 있다.

어느 학자가 토로한 심정적 고충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학자가 동학 천도교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써놓고도, 더 그 이상의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학 천도교의 사상이나 교리에 관한 공부 없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그것이다. 그렇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위의를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동학사상과의 연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중요한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이 추동되는 데에 결정적인 배경과 힘이 되었던 사상을 함께 고찰하므로, 동학이 펼친 동학농민혁명, 그 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찾아갈 수 있고, 나아가 우리는 30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 150주년을 보다 뜻 깊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심을 가지고 홍주성 전투에 접주로 참여하다

참여자 김양권의 손(孫)

김영규



Q 김영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부이신 김양권 열사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조부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집안의 내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김영 김씨로 신라 김씨나 후 김씨라고도 합니다. 김수로왕의 후손들이죠. 고조부 때부터는 태안군 수룡리 근흥면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부께서는 당시 호조참판이라는 정3품의 벼슬에 계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제부 차관 정도의 직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불심이 깊으셔서 “나만 배부르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말씀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조부께서는 고조부께 한학을 배우시면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밤에 당나라 시를 읊으시거나 시조를 자주 부르시곤 하셨고 마을의 만사(輓詞)를 직접 써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훈학을 하기

도 하셨습니다. 또 항상 의협심을 가지고 계셔서 한 번씩 태안 장에 들르시는 날에 건달들이 눈에 띄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키가 6척이 넘으셨으니 당시에는 체골이 장대한 편이셔서 건달들도 함부로 대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싸운 사람들을 크게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남에게 관대하고 잘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은 죽을 해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쌀가마를 열어 이웃에게 쌀을 퍼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죽을 먹어도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나?”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저희 조부님의 장인, 즉 진외조부께서는 병마첨절제사(병마절도사에 속한 종삼품 무관 벼슬)를 지내시던 중 동학에 입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조부님이 계시던 수룡리 근처의 마금리에 거처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있을 수 없다. 함께 일어서자.”고 조부님을 설득하셔서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Q 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조부님은 동학에 입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접주로서 활동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외조부님과 조부님은 홍주성 전투에 참여하셨는데, 당시 지휘관으로 참여하셨기에 편의상 접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당시 농민군은 크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두 분께서는 목숨을 보존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뿐 아니라 6.25전쟁도 겪으셨는데, 당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전쟁에서 죽는 것은 별거 아니다. 폭탄을 던지고 총으로 쏘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죽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죽창, 몽둥이, 쇠스랑 등을 가지고 전투 벌였는데 훨씬 서슬 시퍼렇고 무서운 싸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인해 집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스물여섯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던 저희 조모께서는 명절만 되면 항상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낮에는 참는 기색을 보이시다가 밤이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외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지도자로 가담하셨고, 그 참여 사실로 인해 저희 외가는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관군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외가 가족을 전부 밧줄로 결박해 집안에 가둔 뒤 집을 통째로 불 질러 화형 시켰다고 합니다. 조모님은 명절만 되면 그때의 참상이 생각나 눈물을 보이셨던 겁니다.

또 제가 조부님과 함께 살던 당시, 한번 씩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곤 했는데 그럴 때면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나 지나치던 사람들이 동학 할아버지, 접주 할아버지 지나간다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지 오랜 후에도 사람들은 조부님을 동학란에 참여했던 역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부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동학농민군이 그랬듯 먼저 섬으로 피신하셨다고 합니다. 가회도라는 섬에서 피신해 계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관군에게 요시찰인(要觀察人)으로 감시를 받아 도저히 이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되자 다시 강원도로 유랑을 떠나셨습니다. 강원도에 족보 없는 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족보를 만들어 주고, 제사지내는 집의 축문을 대신 읽어주시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훈학을 해주고 하시면서 노잣돈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부께서 기골이 장대하셔서 눈에 띄는 분이셨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 변성명(變姓名)을 하고 한 달 정도 단위로 강원도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또 여기저기 글만 써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의심해 밀고를 할까봐 정을 하나 사서 맷돌 만드는 기술을 배워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피신하시다 잠잠해 질 때가 되셔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하층민들이 먹고 입을 것이 없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조부님도 양반이셨고 그분께서 제게 몰락양반들도 많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보아, 분명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뜻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부님의,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뜻이 올바르게 평가받아 서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국내화 · 세계화하기 위하여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전해철**



Q 전해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계에서 45년간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유교회 충남도본부 회장, 한국서원연합회 부회장, 충청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충청도 내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Q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는 어떤 계기로 설립되었습니까?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를 발족하기 이전에는 천안 전씨 대종회에서 전봉준 장군이 사형당하셨던 날인 4월 24일에 맞춰 시향제를 지냈습니다. 현재 사업회의 전성준 사무총장이 봉사손(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으로서 제를 올렸지요. 그러나 시향제는 문중 사람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란 한계가 있어 외부인들의 참여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를 발족했고, 작년부터 시향제를 추모제로 변경해 그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행사의 규모도 크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지요.

현재 사업회 사무실은 천안에 위치해있는데, 지금으로부터 7대조 조부님까지는 천안의 집성촌에서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천안 전씨 집안은 대대로 양반가문이었으나 점점 집안이 기울게 되면서 아래지방

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고 전봉준 장군께서도 그렇게 고창, 정읍, 원평 지역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Q 현재 추모제가 전봉준 장군 단소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단소는 어떻게 조성된 것입니까?

1950년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던 해에 문중에서 모금을 통해 전봉준 장군의 단비를 설립하는 일이 의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던 도중 6·25사변이 일어나 아쉽게도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휴전이 선언된 후에야 단비설립이 다시 논의되었고 그 후 1년이 지나 동학농민혁명이 1주년을 맞이했던 1954년에 마침내 뜻을 모아 단소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가장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단비에는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봉준지단>이라 새겨져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의 기념물 중 최초로 민주라는 글귀를 새겨 넣어 전봉준 장군께서 목표로 하신 사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Q 전봉준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라면 거의 모든 곳이 전봉준 장군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로서 모든 사건과 전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회에서는 전국의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tour de france라는 세계적인 자전거 경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코스로 연결하여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동호회의 규모로, 이후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라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가시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전봉준 장군 순국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의 추모제 자체는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단소의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의 단소는 1954년 설립된 이래로 선조 분들의 전봉준 장군에 대한 흠모와 열정으로 인해 가지각색의 비석이 난립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를 정비해 한 곳으로 모아 처음 단비가 세워졌던 당시, 즉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에 관한 학술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주화의 효시이자 지방자치체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집강소 제도를 실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학농민혁명 세미나도 개최하실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전봉준 장군의 선양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전봉준 장군의 뜻과 정신이 바르게 선양되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군의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사발통문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서명을 등글게 작성한 이유가 주동자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발통문의 진정한 의미는 위아래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추구하셨던 정신과 그분의 리더십이 정확히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이 산재하는 정읍에서조차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전봉준 장군 고택과 만석보터 단 두 곳뿐입니다. 다른 유적지 역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은 역시 장군의 단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문화재화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또 한편으로 바라는 것은 전봉준 장군의 직계후손을 찾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옥례 씨가 전봉준장군의 후손이라 주장했으나 많은 세월이 지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기록과 증언을 할 주변 인물들이 사라져 정확한 사실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추모제를 지낸 이후 느지막한 저녁에 단소를 찾아와 참배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볼 때면 혹시 장군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재단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기념사업회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상기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도왔으면 합니다. 저희 사업회 역시 열정을 가지고 재단의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헌(曹錫憲) : 태안지역의 대표적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강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 조재곤

{ 충청도 서북상황과 동학입도 과정 }

조석헌(1862~1931)은 창녕 조씨로 충청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재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원북면 지역에서는 비교적 명망이 있었던 집안이었다. 충청도 서북지역은 1880년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동학지도자 박회인과 박희인의 입도와 포교로 동학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93년 보은취회 이후 동학교단의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박회인의 예포(禮包)와 박인호의 덕포(德包)로 나뉘어져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포와 덕포에 본격적으로 입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최시형의 동학교단의 영향을 받고 있던 북접 계열이었다.

조석헌은 상암 박회인(일명 덕칠)을 통해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1894년 3월에 입도하였는데, 때는 전라도 무장에서 전봉준이 기포한 기간이었다. 그는 그해 5월 태안 접주에 임명되었고 둘째 형 석승도 서산접주에 임명되었다. 셋째형 석훈도 동학에 입도하였다. 또한 이후 조석헌의 아들 명승은 태안지역의 또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문장준의 장녀와 혼인하였고, 장녀는 박회인의 장남 문규와 혼인을 하였다. 동학 입도 이후 조석헌은 최시형의 지침을 받은 박회인의 지시를 받아 태안 일대에서 포교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8월 평양전투 승리로 2만 여명의 청국군 주력을 격파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토벌 방침을 본격적으로 천명하는 한

편 조선정부군과 지방군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탄압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전봉준 등은 전라도 삼례에 모여 재봉기를 결의하였고, 이후 최시형도 청산대회 직후 전국 교단조직에게 기포령을 내렸다.

{ 농민군으로서의 활동과 피신 }

이로부터 전국적인 동학농민군의 재봉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태안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부 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충청도 서북 지역의 경우 태안군수 신백희와 안무사 김정제의 동학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로 귀결되었고, 태안군수와 서산군수가 체포한 내포지역 농민군 지도자 30여명을 처형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에 태안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해 9월 30일 방갈리의 접주 문장로의 집에 모여 대규모 봉기를 결의하였다. 조석헌은 마침 어머니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잠시 미루고 참여하였다.

본 포에서 징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응하여 일제히 우리 포(包) 관내는
일시에 전광과 같이 모이며,
한편으로 각처에 갇힌 두목을 일일이
방출하기로 약속하니 9월 그믐이었다.



이날 모인 수백명은 다음날 태안읍에 모였고, 관아를 점거하는 한편 태안군수와 안무사를 칼로 처형하고 동료들을 구출하였다. 이때 서산군수 박정기도 처형하였다. 이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후 예포 대접주 박희인이 있는 목소리의 예포 대도소에 집결하고 대도소 산하에 개별적으로 도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후 태안과 서산의 농민군들은 해미 승전곡으로 옮겨 정부군과 민보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고, 예산 신례원에 다시 집결하였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홍주성 전투에서 홍주목사 이승우 주도의 일본군, 관군, 민보군으로 이루어진 연합토벌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크게 패하여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였고, 체포된 사람들도 총살되거나 참수형으로 목을 잘리는 등 잔인한 학살과 보복이 시작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농민군 가족들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조석헌 집안의 경우 둘째형 석승은 11월 체포 후 처형되었고, 다행히 셋째형 석훈과 그는 겨우 목숨을 구하여 피신에 들어갔다. 이후 조석헌의 생활은 일생동안 피신의 연속이었다. 이는 1994년 손자 병철의 증언록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때 조석헌은 대접주 박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를 따라 일정 기간 동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희군을 만나기도 하였고, 잠시 집에 들렀다가 관군의 수색을 받기도 하였으나 천우신조로 위기를 면한 적도 있었다.

{ 교단재건과 자전적 회고록 저술 }

1965년 문인덕 주도로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순도한 순도자 명단 에는 조석헌에 대해,

갑오동학혁명 당시 참전 후
대접주 상암(湘菴) 박희인(朴熙寅) 선생
수하로 해월신사(海月神師) 모시고
10여년 풍운 속에서 수난을 보내시다가
햇빛을 갑진(甲辰)에 보자
예산(禮山) 지방으로 이거하시여
종신(終身)토록 교목 접주 교장 등으로
종신(從身)타가 환원(還元)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석헌은 박희인이 만들어준 경고문 등을 지니고 다니면서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피신 과정에서 1895년 강원도에서 최시형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의 지시를 전달받아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때 그는 포교를 위해 갑오년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후 얼마 남지 않은 가산도 정리하였다. 조석헌은 1896년 수접주에, 1897년 교수에 임명되었고, 1898년 최시형 순교 이후에도 수령 직임과 교첩을 여러 읍에 나누어주는 등 해체위기에 있었던 교단 조직재건에 혼신을 다했다.

그는 1905년 천도교 창건 이후 1907년 천도교 교령, 1908년 대정을, 1913년 이후 포덕사, 예산교구장, 종리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에는 낙암(樂菴)이란 도호(道號)를 받았고 이후 1931년 70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포덕사와 천도교 종리원 감사원, 도사 등을 하였다. 사망 직전까지 조석헌은 자신이 그간 경험한 내용을 조석헌역사 라는 회고록으로 남겼다. 사돈지간인 문장준의 기록 문장준역사와 함께 일지 형식의 이 책은 지금도 충청도 서북지역 동학농민군 역사와 후기 동학농민운동사 천도교사 이해와 복원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완산칠봉 장군봉 팔각정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2

덕진공원-김개남 장군 추모비, 손화중 장군 추모비, 전봉준 선생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덕진공원은 드넓은 호수를 안고 있는 시민공원으로, 전주의 명소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곳이다. 여름이면 만발한 연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장관을 이루는 중앙의 호수는 옛 전주 땅인 완산부를 도읍으로 정한 후백제의 왕 견훤이 풍수지리를 따라 땅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어 만들었다는 설과 고려시대에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두 가지의 기원설이 존재하고 있다.

이곳이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주를 대표하는 공원이라는 입지로 인해 많은 조형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그 중에 정문으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향하면 커다란 바위가 올려져 있는 비석 두 개와 단상위에 위풍당당히 서있는 청동상이 한 구역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형물들은 각각 동학농민혁명의 삼대 지도자인 김개남, 손화중, 전봉준 장군을 추념하는 것이다.



전봉준선생상

전봉준선생상

전봉준 장군을 기념하는 ‘전봉준선생상’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주에 최초로 세워진 기념조형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1981년 10월에 전주청년회의소와 풍남청년회의소에서 건립했으며, 보국안민이라는 글귀가 한글로 음각되어 있는 기단위에 전봉준 장군의 전신상이 서있는 형태이다. 청동으로 제작된 전봉준 장군의 전신상은 머리에 패랭이를 쓰고 높이 치켜든 한 손에 사발통문으로 보이는 종이뭉치를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청동상의 얼굴이 실제 전봉준 장군과는 거리가 먼 형태를 하고 있어 정확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제작되었다는 혹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전봉준선생상의 근처에는 머리위에 사이좋게 바위를 하나씩 얹고 있는 비석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 바위에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은 김개남장군추모비이며, 바위에 ‘사람이 한올이다’, 중단부에 ‘보국안민 척양척왜’가 새겨진 것은 손화중장군추모비이다. 김개남장군추모비는 1993년 5월 30일에 <김개남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손화중장군추모비는 1998년 11월 7일 <손화중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군의 뜻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의미로 각각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삼대 지도자를 추모하는 기념물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는 드문 것이며, 덕진공원에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여름철에 방문한다면 호수 가득 피어있는 연꽃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완산칠봉 전투지

완산칠봉은 내칠봉과 외칠봉으로 나누어진 봉우리의 군집을 일컫는다. 내칠봉은 장군봉, 옥녀봉, 무학봉, 백운봉, 용두봉, 탄금봉, 매화봉으로, 외칠봉은 장군봉, 검무봉, 선인봉, 모란봉, 금사봉, 매화봉, 도화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바로 다음날인 4월 28일 홍계훈의 관군이 전주에 도착했다. 홍계훈은 도착과 동시에 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풍남문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내칠봉에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완산칠봉은 최고해발 186m인 낮은 산



김개남장군 추모비



손화중장군 추모비

이지만, 전주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성을 수성하는 농민군과 탈환하려는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연이어 벌어졌다.

전주성을 둘러싼 관군과 농민군의 첫 전투는 4월 28일 저녁 6시경 일어났다. 관군 측에서 먼저 전주성 안으로 대포 3발을 발사하였고, 이를 효시로 관군과 농민군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선공을 당한 농민군은 남문과 서문을 통해 성을 나와 완산으로 진격했으며, 성벽 위의 농민군들은 일제히 관군을 향해 포를 발사했다.

농민군은 사력을 다해 전투를 벌였으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관군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 패배한 농민군이 성안으로 후퇴하자 홍계훈은 10여명의 부하들과 함께 완산에서 내려와 풍남문을 향해 연거푸 대포를 발사했다. 그러나 성문이 견고해 파괴되지 않았다. 이때 홍계훈이 발사한 대포 중 일부는 전주성 안으로 떨어져 경기전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전주성에서의 첫 전투에서 농민군은 3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체포되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농민군이 먼저 북문으로 나와 황학대를 공격했으나 경군의 포격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성으로 다시 물러났다. 두 번의 패배를 겪은 농민군은 30일에는 경군의 도발에도 전투를 벌이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농민군들은 5월 1일 남문을 개방하고 공격했으나 경군의 포격에 마참가지로 300여명의 희생자를 내며 패배하였다.

2일에도 경군은 전주성에 포격을 가했고 이번에는 농민군들이 서문을 통해 용머리고개를 공격했지만 역시 10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후퇴했다. 기세가 오른 관군은 성안으로 여러 차례 포격을 가했으며 농민군들은 포탄을 피해 지붕이나 마루 아래로 숨

“

선공을 당한 농민군은 남문과 서문을 통해 성을 나와 완산으로 진격했으며, 성벽 위의 농민군들은 일제히 관군을 향해 포를 발사했다.

”





전라감영터

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 마침내 전주성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과 관군의 최대 격전이 벌어졌다. 농민군들은 결전의 의지로 서문과 북문에서부터 유연대를 공격했다. 농민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유연대의 관군들은 남쪽으로 후퇴했다. 농민군은 이들의 뒤를 쫓으며 기세를 몰아 다가산, 용머리고개를 점령하고 경군의 본영을 목전에 두었으나, 본영으로부터 집중적인 포격을 받게 되어 용장 김순명, 아기장수 이복용 등 500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성으로 후퇴했다. 전봉준 장군도 이 전투에서 허벅지에 총탄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투가 오후 6시경에야 끝났다는 것에서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연이은 패전에 농민군은 전력에 큰 손실을 입었고 사기 또한 저하되어 이후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농민군 사이에 전봉준 장군을 결박해 관군에 바치고 목숨을 보존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런 동요는 전봉준 장군이 직접 나서 “나의 말을 따라 다들 사지에 들어왔는데 어찌 조금 더 참지 못하느냐”고 언급하며 겨우 잠재할 수 있었으나 고립된 농민군의 상황은 점점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전라감영 터

전라감영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현재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 107호로 지정되었다.

농민군과 관군과의 전투는 5월 3일까지 이어진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홍계훈은 정부에서 동학농민군의 토벌을 위해 청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청군이 조선에 들어온 것을 이유로 일본군 또한 군대를 파견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의 움직임은 조정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기에 이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군이 핑계로 사용한 청군의 파견을 몰릴 필요가 있었다. 결국 조정은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원인인 동학농민혁명군을 해산시켜야만 했고,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화약을 맺자는 결론을 냈다.

농민군들은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군의 화약제에 동의하여 5월 8일에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고 전주성을 나와 해산하였다.

“

전주성에서 몰려난 동학농민혁명군은 각 고을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는 자치적인 행정과 폐정개혁 활동을 수행한 기관으로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전주화약을 통해 관군 측에서는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민군 측에서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27개 조항을 국왕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폐정개혁 27개 조항은 탐관오리의 처벌과 제거, 삼정의 개선, 대원군의 국정 참여, 외국상인의 불법 상업 활동 금지 등 당대의 총체적인 정치 사회 경제의 모순철폐를 주장하였다.

전주성에서 몰려난 동학농민혁명군은 각 고을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는 자치적인 행정과 폐정개혁활동을 수행한 기관으로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에는 전라감사 김학진의 집무실인 전라감영의 선화당을 집강소로 운영하여 전라도 일대의 행정을 장악했다. 민중자치를 실현했던 집강소 중에서도 관과 민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합리적인 지역통치를 실행하고자 했던 전라감영의 선화당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라감영의 위치는 옛 전북도청의 자리이며 현재는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51년 화재로 인해 선화당이 소실된 이후 1996년에 처음으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계속적인 간담회와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해 복원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감영을 비롯하여 전주 4대문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다.

전라감영터의 회화나무



동학농민혁명

초등, 중 · 고등용 교재

후세 양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교육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교육의 중요성은 언제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주안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듯,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공감하고 이를 선양해 나갈 수 있는 후세의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했던 2014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서적들이 소설, 연구저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교재는 이러한 후세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이라는 측면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결과물로서 주목된다.

초등학생용 교재

초등학생용 동학농민혁명 교재는 역사교과서의 과정 중 동학농민혁명을 배우게 되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교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원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원인에서부터 우금티 전투의 패배이후 그 막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소단원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물음을 통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동기를 심어주고 있다.

두 번째 단원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서는 평등 민주 자주라는 세 항목을 주요 정신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평등’을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사방통문 작성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인권관련 자료, 각 상황에 맞춘 역할극을 통해 ‘민주’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체험함으로써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을 연결시켜 백범 김구선생, 항일의병, 안중근 의사 등을 통해 설명했다.

마지막 단원인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유적지, 기념행사

등의 정보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시, 노래, 미술작품 등을 소개하며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초등학생용 교재는 사진 그림 만화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삽입되어 있으며, 토론, 역할극 등 집중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동기유발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중 고등학생용 교재

중 고등학생용 교재의 경우 초등학생용 교재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조선의 경제 사회적 변화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역의 세부적인 역사까지 꼼꼼히 다루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의병,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항쟁 등으로 계승되어 온 것을 서술했다.

특히 서구의 근대혁명과 비교해 동학농민혁명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초등학생용 교과서와 비교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평등·민주·자주에 대해 시민의 저항권, 선거 제도 등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 맞춰 심화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교재의 사용계획

전북교육청은 이 교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25명의 교재편성위원회를 꾸렸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회원, 학자 및 연구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다.

동학농민혁명 교재는 역사교과의 동학농민혁명 단원을 배우는 학생들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보급된다. 2014년에 초등학생용 약 2만부, 중 고등학생용 약 5만부를 발간했으며, 해마다 계속 발간해 역사 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재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장애 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당뇨로 진행되는 것 막아야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의 대표적 질환인 당뇨는 합병증이 매우 심각해 무서운 질환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보통 당뇨가 시작된 뒤 10~15년이 지나면 주로 콩팥이나 눈의 망막, 뇌 등에 분포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뇌혈관을 막으면 해당 뇌 부위의 조직이 죽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흔히 ‘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이 생긴다.

아울러 신경계 부작용으로 감각 및 운동 기능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합병증은 여러 치료를 통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거의 예방이 가능하거나 발생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문에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뇨로 진행될 기미가 보일 때부터 관리하자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당뇨의 전 단계 가운데 하나인 내당능장애의 위험성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당능장애 10명 가운데 7명은 당뇨병으로 진행

보통 당뇨병은 공복 때 혈당을 재어 126이상이면 진단된다. 이 검사에서 정상은 100미만이고 100~125이면 앞으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뇨병 검사는 공복뿐만 아니라 식후 검사도 중요한데, 공복 상태로 병원을 방문한 뒤 포도당 75g을 물에 타서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나 혈당을 검사하여 200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이때 측정된 혈당이 140~199이면 내당능장애가 있다고 예견한다. 참고로 이 혈당이 140미만이면 정상범위에 속한다. 이처럼 내당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체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이나 과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 걸릴 가능성 커져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기능을 하는 곳은 간, 근육, 지방조직 등이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주로 간에서, 식사 뒤에는 근육에서 혈당 조절을 한다. 내당능장애의 경우 공복 혈당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에 있고 식후 혈당이 문제가 되므로, 간보다는 근육에서의 혈당 조절 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줄면서 이런 혈당 조절 작용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내당능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게다가 당뇨병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비만이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욱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당능장애 그 자체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가능성 커져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통 정상수치에 있는 사람보다 당뇨병이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2~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당뇨병 이전 단계인 내당능장애가 있을 때에도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 견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게는 10%, 높게는 4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때문에 내당능장애 때부터 식사량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혈당 조절에 이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 권고된다.

생활습관 개선이 당뇨를 막는 지름길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내당능장애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약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식사량 조절 및 운동 등 생활습관을 교정했을 때 내당능장애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정상 혈당으로 낮아지거나 최소한 내당능장애로 남아있지만, 약을 쓸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국 식사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약보다 당뇨병의 진행을 더 막는다는 것이다. 내당능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근육이 중요하므로 운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 개선의 첫째 과제는 정상 범위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다. 비만해지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이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돼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비만 또는 과체중일 때 몸무게를 5~10% 감량해도 혈당 수치는 크게 개선된다.

근육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운동은 그 자체로 몸무게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빠르게 걷기 등과 같은 운동을 한 번에 30분~1시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식사조절’하면 가려야 할 음식부터 떠올리는데, 음식종류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한다. 구체적으로는 밥, 빵, 국수 등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설탕, 꿀 등 단맛이 강한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현미, 통밀, 잡곡 등이 추천된다. 또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 아울러 어류나 육류 등이 골고루 포함되게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육류에서 비계나 닭 껍질 등 기름기가 많은 부분은 제거하고 먹는 것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짜게 먹거나 음주를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 본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건강보험』 2010년 5월호에 실린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장애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를 발췌한 것입니다.

기념재단

시발문



01

2015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공모 심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의 활동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수행하고자 실시한 2015년도 정신선양사업 공모에 21개 단체가 지원했다. 재단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27일(화) 공모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공모사업의 필요성, 효과의 기대성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논의결과 동학농민혁명의 상생정신에 입각해 전체 응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심사위원회 전원이 동의해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21단체가 모두 지원받게 되었다.



02

재단 2기 7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7차 이사회가 지난 2월 12일 (목) 용산역 ITX 회의장 5호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4년 정신선양사업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산삭감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검토, 원평집강소 국유매입 및 보수정비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사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내·외부 구성내용이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었으며,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기념대회를 서울에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03

송중수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사발통문 원본 기부

지난 2월 12일(목) 송중수씨가 사발통문의 원본을 재단에 기부했다. 사발통문은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 뜻을 모은 동지 20명이 봉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격문과 함께 결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참여자의 이름을 둥근 사발을 얹어놓고 그 끝을 따라 원을 그리며 적어 넣은 것에서 사발통문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송중수씨의 집 마루 밑에 70여 년간 묻혀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것을 이번에 재단에 기부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송중수씨의 기부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패를 증정했으며, 원본 사발통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04

직원대상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동심원 조경에서는 지난 3월 9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학농민혁명교육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념공원의 전체적인 구성과 기억의 들판, 울림의 기둥, 농민혁명의 길, 캠핑장 등 세부시설의 설계방향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직원들은 설명이 종료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조형물, 배수시설, 안전시설, 차량동선, 수장고 설치유무 등을 문의했으며 당시 농민들이 추구했던 세상,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미래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동심원 조경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지난 3월 5일(목) 천도교 수운회관 9층 회의실에서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의 대의원 64명이 참석했으며, 2014년 결산보고서와 2015년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또한 임원선출을 통해 제9대 회장에 이기곤 상임부회장을, 신임 감사로는 이정태 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이기곤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우애하며 협조하는 것이다. 문체부, 기념재단과 서로간의 화합을 통해 유족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5년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지원단체 중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영호)가 최대 금액을 지원받으며 선정되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무대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공연예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국악 10건, 연극 4건, 무용 4건, 음악 3건, 다원 1건 등 총 22건의 공연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한 종합 무예극 '녹두 전봉준'이 다원 부문에 선정되어 최대 지원금인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창작 작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봉준 장군 탄생 159주년 기념행사

지난 1월 10일(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5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위원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석태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헌수, 봉정, 탄생 159주년에 맞춘 국화 159송이 헌화 후 축례고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현재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고부봉기 기념제

고부봉기기념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길)는 지난 2월 13일(금) 이평면사무소 앞에서 고부봉기 기념제를 개최했다. 고부봉기는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해 말목장터에 집결한 후 고부관아로 진격해 점령한 것이다.

기념제는 행사 참여자들이 고부봉기가 시작된 예동마을로부터 말목장터까지 진군하는 재현행렬로 시작되었다.

진군행렬이 말목장터에 도달한 뒤, 김대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갑상 이사장, 장학수 도의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김대곤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고부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바랬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이런 동학농민혁명군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동학학회 '전라도 남원 동학농민혁명' 출간

동학학회(회장 최민자)에서 '전라도 남원 동학농민혁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기획된 동학총서 중 두 번째 결과물이다.

남원은 김개남 장군의 주도하에 남원대도소가 설치되어 전라좌도를 통솔했던 지역이며, 동학의 교주 수운 최제우가 은적암에 은거하며 동학 경전을 저술하고 동학의 교리를 완성한 곳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라도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저자로 참여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은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시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미래적 가치로 전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120주년 기념대회

지난 3월 14일(토),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12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가 주최하고 박성일 완주군수, 신호균 jtv대표, 박재완 전라북도 의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대둔산에 진지를 세우고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해 최후의 항쟁을 벌인 동학농민혁명군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추모위령제를 치른 이후 선별된 인원들이 대둔산 최후 항전지를 등반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정호 회장은 “대둔산 최후 항전지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다”며 “올해를 계기로 대둔산 최후항쟁 기념대회를 연례행사로 치를 것”이라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내포유족회 창립총회

동학농민혁명 내포유족회 창립총회가 지난 3월 20일(금) 태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내포(內浦)지역이란 충청남도 서북부의 가야산 주변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것이다. 이곳은 지역마다 각각의 동학농민혁명 유족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내포유족회 창립을 통해 이를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유족회는 각 지역의 지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진태구 전 태안군수, 박성목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한국 태안문화원장, 지요하 소설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포유족회를 이끌어가게 된 문영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포유족회가 창립된 것을 계기로 모든 지역의 유족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충청도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 유적지 등을 밝혀내고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알려드립니다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 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아갈 길 등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분 량 : A4용지 1 ~ 2장 가량(11포인트, 줄간격 180%)
- 보내실 곳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jiori@1894.or.kr
우편송부 또는 이메일 송부

※ 송부 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방법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dji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